

## HEADLINE NEWS

### 구시가지 재생을 위한 「A City of Villages」 계획 추진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 도시위원회는 최근 도시외곽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A City of Villages」 계획을 향후 20년의 도시성장 모델로 채택하고, 5개의 구시가지 마을을 우선 시범사업지역으로 발표했다. 우선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Normal Heights, San Ysidro, Southeastern San Diego, North Park, The Paseo 등은 5년간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구조 개선사업과 각종 개발계획에서 市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구시가지 고용중심지들은 트랜짓 등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되고, 주거와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이 확충되어 직장, 주거, 쇼핑, 여가활동이 자동차 이용 없이 근거리에서 가능하게 된다. 市는 이 계획이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며 구시가지 재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市의 중요한 오픈스페이스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ww.signonsandiego.com/news/metro/20040211-9999-7m11pilot.html](http://www.signonsandiego.com/news/metro/20040211-9999-7m11pilot.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고층건물 개발시 역사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런던)
- ② 「걷기 편한 런던市 만들기」 계획 추진 (런던)
- ③ 복합용도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코드' 시행 (캘리포니아州: 페타루마市)

### 도시환경

- ④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전개 (뉴욕)
- ⑤ 2003년도 매립쓰레기 감량목표 초과 달성 (토론토)
- ⑥ 지역내 친환경적인 자연요소를 관광상품으로 개발 (영국: Norfolk/Suffolk Broads)

### 도시교통

- ⑦ 버스우선신호시스템 운행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LA)
- ⑧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애틀랜타)
- ⑨ 혼잡통행료 1만원 부과제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런던)

### 사회복지·문화

- ⑩ '고령자를 위한 도우미 파견 서비스' 하루 24시간 운영 (동경)
- ⑪ 가구소득에 제한 없이 초·중학생 입학비 전액 무료화 시행 (동경)
- ⑫ 공공도서관에서 홈리스들의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요스틴

### 행재정

- ⑬ 민간임대주택 퇴거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東京 규칙」 제정 (동경)

### ① 고층건물 개발시 역사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런던)

영국 런던시의 고층건물 선호자들은 그동안 토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고층 건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향후 20년간 런던 내의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 금융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여러 기업의 본사를 런던에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층건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市の 관광명소인 타워브리지 옆에 지어진 스위스 레 본사(Swiss Re Tower) 빌딩은 이러한 경향의 좋은 예이다.

한편,市の 스카이라인과 역사성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만만치 않다. 특히市の 랜드마크인 세인트 폴 성당과 타워브리지를 압도하는 고층빌딩의 개발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지방정부는 사실상 금지조치를 내렸다.市中에서 고층건물 개발이 성공하려면 결국 역사적인 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양질의 건물 디자인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lanning, 2004. 1. 23)

### ② 「걷기 편한 런던市 만들기」 계획 추진 (런던)

최근 영국 런던시는 2015년까지市를 세계에서 보행자들이 걷기에 가장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인 「걷기 편한 런던市 만들기」를 발표했다.市는 지난 10년 동안 시내에서의 보행비율이 20% 감소한 반면 차량 이용률은 더욱 증가해 왔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市는 2마일 내의 짧은 거리는 걷기를 권장하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이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市는 런던을 걷기 편한 도시로 조성하면, 살기에도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ws.bbc.co.uk/1/hi/england/london/3511205.stm](http://news.bbc.co.uk/1/hi/england/london/3511205.stm))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③ 복합용도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코드’ 시행 (캘리포니아주: 페타루마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타루마(Petaluma)市는 2003년 7월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를 폐지하고 ‘스마트코드(Smart Code)’를 채택하여, 미국에서 최초로 스마트코드를 시행하는 도시가 되었다. 市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 도입에 대해 지난 7년 동안 시민, 정책결정자, 개발업자, 환경론자들과 뜨거운 논쟁 끝에 스마트코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市는 도심에 방치되어 있던 400에이커의 토지를 주거 및 상업 복합용도로 개발함으로써 도심 재활성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스마트코드는 ‘New Urbanism’ 운동의 리더인 Andres Duany가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용도지역제를 폐지하고 혼합용도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도시 형태와 특성,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도시설계지침을 제공한다.

([www.signonsandiego.com/news/state/20040222-1144-ca-reinventinggrowth.html](http://www.signonsandiego.com/news/state/20040222-1144-ca-reinventinggrowth.html))

([www.tndtownpaper.com/Volume5/smartcode.htm](http://www.tndtownpaper.com/Volume5/smartcode.htm))

### ④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전개 (뉴욕)

미국 뉴욕市 교통계획기관인 ‘New York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uncil (NYMTC)’은 9.11 사태 이후로 보류되었던 연방정부의 대기질 기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나홀로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하는 「지역 통근자 선택(Regional Commuter Choice)」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NYMTC’는 이를 통해 혼잡을 완화하고 차량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청정연료 및 대기오염 저감기술의 사용을 권장하고 노후차량의 개선을 포함하는 「지역 청정연료(Regional Clean Fuel)」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공공 및 개인 차량업자들과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지역 신호체계 개선(Regional Signal Timing)」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차량 대기오염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행 및 자전거통행 증진방안, 다인승 전용 차로제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ww.nymtc.org/downloadablepgs/council\\_contact/ccfiles/cc1203.pdf](http://www.nymtc.org/downloadablepgs/council_contact/ccfiles/cc1203.pdf))

### 5 2003년도 매립쓰레기 감량목표 초과 달성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2000년에 「The City's Task Force 2010 Report」에서 2003년까지 매립쓰레기 양을 30% 감량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03년 시의 매립쓰레기는 재활용, 비료 등으로 자원화, 새로운 기술계획 등에 의해 2000년에 비하여 32% 감소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최종 목표는 2010년까지 매립쓰레기를 100% 감량하여 더 이상 매립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The City's Task Force 2010 Report」에서는 정부와 시민, 상품제조업자들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첫째, 재활용 가능 물품의 범위 늘리기, 둘째, 쓰레기 자원화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하기, 셋째, 재활용 및 재사용 이후 남은 쓰레기를 다루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www.toronto.ca/inter/it/newsrel.nsf](http://www.toronto.ca/inter/it/newsrel.nsf))

### 6 지역내 친환경적인 자연요소를 관광상품으로 개발 (영국: Norfolk/Suffolk Broads)

영국 Norfolk와 Suffolk Broads 지역의 도시계획가들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로와 습지, 새들의 서식지 등 친환경적인 자연요소를 이 지역의 관광요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인 「Environmental Tourism」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자연요소를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잘 보존하여 이 지역을 관광상품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 요소를 관광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 이 계획은 20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 4월에 발표될 초기 5년 동안의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금 약 17,000,000파운드(한화 약 2,500억 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복권 판매를 통해서 충당할 예정이다.

(Planning, 2004. 2. 20)

### 7 버스우선신호시스템 운행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에서 시행되어 온 대중교통우선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업은 주요 4개 도로축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신호시스템 개선을 통해 버스 통행속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스템은 추적 장치를 이용해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운행시간의 지체 여부를 계산해 이를 신호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운행시간 지체가 예상될 경우 녹색시간 신호 연장, 연동화 등을 통해 버스 정지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한 정류장별로 버스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개 도로축의 성과가 두드러져 통행시간이 30% 감소되고 승객은 40%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교통축과 교차하는 부(副)도로축이 겪는 지체가 신호주기당 차량 1대당 1초에 그쳐 그 역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市는 성공적인 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1,400개의 신호 교차로에 이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www.westerncity.com/Feb04HPLosAngeles.htm](http://www.westerncity.com/Feb04HPLosAngeles.htm))

### 8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권에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2/3 이상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빠르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출퇴근자들이 통행수단 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행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다른 중요한 변수로 이용의 편리성, 저렴한 요금, 적은 환승횟수, 역 주변의 무료주차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애틀랜타 대도시권 1,100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출퇴근 통행수단,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느낌, 대중교통수단의 가장 중요한 요건 등을 조사한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은 자가용 출퇴근이 92%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www.ajc.com/metro/content/metro/0204a/03transit.html](http://www.ajc.com/metro/content/metro/0204a/03transit.html))

### 9 혼잡통행료 1만원 부과제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런던)

영국 런던市에서 1년 전 많은 찬반논란 끝에 시행된 혼잡통행료 제도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市운송국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이후 市 중심부의 교통량이 18% 가량 감소되었고, 차량 정체정도 또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市는, 혼잡통행료 부과는 일주일에 2백만파운드(약 4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오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 교통흐름이 원활해진 덕분에 市방문객 및 거주자에게 보다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혼잡통행료 지역의 소매와 쇼핑센터들은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Royal Institute of Chartered Surveyors'가 발표했다. 현재 오전 7시~오후 6시 30분까지 市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5파운드(약 1만원)의 혼잡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이한 점은 통행료 징수에 따른 또다른 교통혼잡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는 통행료 징수방법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혼잡통행료 부과 표지판과 함께 감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된 운행차량 번호와 운행자가 납부한 내역을 컴퓨터가 자동 체크하여 혼잡통행료 미납자를 선별해낸다. 市는 혼잡통행료 시행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자, 향후 첼시아 등의 런던 서부지역으로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운송국은 사업자측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Planning, 2004. 2. 20)

(Daily Focus, 2004. 2. 25)

### 일본 ‘고령자를 위한 도우미 파견 서비스’ 하루 24시간 운영 (동경)

일본 東京都 세타가야區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도우미(헬퍼나 개호(介護)지원전문원)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都內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고령자 단독세대에도 적용된다.

區는 「고령자 안심 콜센터」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직원을 상주시켜 “침대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한다” 등의 전화를 받으면, 區와 제휴한 재택개호지원센터나 헬퍼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자택을 방문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호 인정을 받지 않은 고령자 세대가 긴급시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시스템이 없어서 119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령화율이 높은 기타자와 지구에서 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약 7,500명이다.

([www.asahi.com/health/aged/TKY200401310330.html](http://www.asahi.com/health/aged/TKY200401310330.html))

### 일본 가구소득에 제한 없이 초·중학생 입원비 전액 무료화 시행 (동경)

일본 東京都 기타區는 4월부터 區內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구소득에 제한 없이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할 방침이다. 區는 이를 위해 신년도 예산안에 55,000,000엔을 계상했다. 전국의 市·區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통원·입원에 따른 의료비는 공비(公費) 부담이 대부분이다. 區는 부모의 부담이 큰 입원에 한해 공비 부담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자기부담분 비용 모두를 區가 독자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아동과 학생 수는 약 18,000명이다.

區에 따르면, 중학생까지의 입원비 무료화는 지방의 일부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이고, 도시로는 요코하마, 카와사키市가 가구소득에 제한을 두고 실시중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가구소득에 제한 없이 중학생까지 입원비 무료화를 실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市규모와 都內 특별구 중 기타區가 처음이다.

([www.asahi.com/health/aged/TKY200402190211.html](http://www.asahi.com/health/aged/TKY200402190211.html))

### 공공도서관에서 홈리스들의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 공공도서관의 분관인 'Little Walnut Creek Branch'에서 2월 한 달 동안 「거리의 예술(Art From the Streets)」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홈리스나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2년째 열리고 있다. 전시회의 목적은 홈리스들에게 예술적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창의력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그 결과로 나온 예술작품들을 매년 전시회를 통해 전시·판매하는 것이다.

2003년에는 2,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전시회에 다녀갔고, 7만 달러가 넘는 판매수익을 올렸다. 지난 11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홈리스들은 25만달러가 넘는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전시회는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틴예술위원회(Austin Arts Commission)의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다.

([www.ci.austin.tx.us/library/news/nr20040211b.htm](http://www.ci.austin.tx.us/library/news/nr20040211b.htm))

### 민간임대주택 퇴거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東京규칙」 제정 (동경)

일본 東京都에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시에 보증금 정산, 입주 기간 중에 생긴 파손부분 수선을 둘러싼 분쟁 등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都는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일본 전국에서 최초로 계약 시점에 적절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都의회 제1회 정례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태평양전쟁 후 주택난 등을 배경으로 시작된 사례금, 갱신료에 대해서도 이들을 계약내용에서 제외시켜 원활한 입주 및 이주를 촉진할 예정이다. 都는 안심하고 임대차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확립을 위해 위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 「東京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2/20e29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2/20e29400.htm))